

## 이집트,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외환통제 시행

### □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외환통제 시행

- 이집트 정부는 3월 24일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, 이집트의 모든 수출기업들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현재 보유중인 모든 종류의 외환 경화(硬貨)의 최소 75%를 국영은행에 매각토록 하였음.
- 동 명령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출 및 그에 따른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것으로, 2002년 1월 1일 이후 수출대금으로 획득한 외환 경화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됨.
- 이집트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집트의 현재 외환보유액은 약 140억 달러로, 1999년 말에 비해 20% 이상 감소한 수준임. 이집트의 외환 상황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개시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, 이집트 정부는 자국의 핵심적 외화수입원인 관광부문의 수입이 2004년까지 8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### □ 달러 암거래 근절을 위한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전격 도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해

- 지난 1월 29일 이집트 정부가 그 동안 고수해 온 관리변동환율제도를 포기하고 미 달러貨에 대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명령도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음.

- o 이집트 정부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확충에 악영향을 미치는 달러 암거래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였음.
-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으로 미 달러貨에 대한 이집트 파운드貨의 공식환율이 20% 이상 상승함에 따라 암시장 환율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나, 이후 암시장 환율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하였음.
- 국영은행에 대한 외환매각을 강제하는 조치에 따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겠으나, 수출기업이 수출을 중단하거나 외환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 우려됨.

전문연구원 오경일 (☎3779-6646)  
E-mail : oki1122@koreaexim.go.kr